

# 즐거움과 보람 주는 연구소 만들어야

글\_ 이인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부장 [optin@kriss.re.kr](mailto:optin@kriss.re.kr)

**한**평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필자는 스포츠를 좋아하며 그 중에서도 테니스를 즐긴다. 야외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면 몸도 마음도 활달해 지는 것 같아서 좋다. 잘 치는 실력은 아니지만 좀 더 나아지려고 이런 저런 분석도 해 보고 공리도 해 본다. 새롭게 시도한 방법이 효과를 보아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이 들면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기도 한다.

테니스가 즐거움을 주지만 크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좋은 일을 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스스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으려면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데 기여하는 일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자의 한 사람으로 30년 동안 출연연구소에서 일해 오면서 테니스에서 느낀 성취감 이상의 즐거움을 연구실에서 느껴 보기도 했다. 테니스에 열중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력을 향상시켰던 것처럼 연구에서도 연구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할 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험에서 입증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었다.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크게는 국가와 같은 여러 종류의 조직에 속해 살게 되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우리들도 산업체, 연구소, 학교, 정부 등의 직장관 전문분야별 학회와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좋은 조직을 선택해야 하고, 이미 속해 있는 조직이라면 우리가 속한 조직을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조직 중의 하나인 정부출연연구소도 더 많은 보람과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조직이 되기를 희망한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의 본업인 ‘연구’라는 것은 본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적성이 맞는 사람이 몰두해서 한다면 연구만큼 즐거운 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연구를 통하여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찾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가 구상한 것을 만들어 보는 즐거움, 자기의 아이디어를 실험을 통해 입증해 보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을 때 연구가 즐거워지며 연구의 성과도 높아진다. 연구에 몰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연구가 보람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며, 연구자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비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지 않아서 도전해 볼 만하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상급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연구에 대한 관심을 빼앗는 복잡한 잡무가 없어야 한다. 수행하는 연구에 보람을 느끼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쓸모 있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어야 하고 기관이나 부서의 역할에 맞는 연구여야 한다.

출연연구소 연구원이 열심히 연구해서 중요한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고 어느 기업에 이전하려 하는데 그 기술이 국내의 다른 기업에 의해 이미 개발된 기술이라면 공정경쟁을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개발된 기술의 수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람 없는 수고를 한 셈이 될 것이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소의 역할이 적절히 정립되고 그 역할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출연연구소의 역할은 설립할 때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설정되었겠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되어야 한다. 기업이나 대학의 역할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축소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업이나 대학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도

대학이나 기업의 능력이 쉽

게 향상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야

의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구소의 역할을 수정해 가는 작업은 연구소 업무를 가장 잘 아는 해당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전문연구팀 육성정책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자들에게 복잡한 잡무를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문연구팀 육성으로 연구원들이 하나의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기본사업비의 비율을 증대시키려는 정책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원들이 연구비 수주를 위해 연구 이외의 일에 시간과 관심을 많이 소모하는 문제도 완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연구소 발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소의 발전이 직원과 연구비가 많아지는 것이라는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연구소의 발전은 좋은 성과를 냄으로써 맡은 역할을 탁월하게,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기관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연구원들이 즐겁게 보람되게 일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에 대한 칭찬과 보상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최근의 신문기사에서 출연연구소의 특허등록과 기술료 수입이 미국의 연방연구소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 출연연구소의 생산성이 합격점이라는 칭찬을 보고 다시 한 번 읽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스크에 자주 나타났던 출연연구소 비판에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획기적인 소식으로 반가웠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금융위기로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연구원의 정년을 단축했던 일은 연구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었으며, 많은 우수한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긴 기간을 준비하고서야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하는 전문가를 너무 일찍 연구현장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합리적인 개선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구소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 모두의 내부적인 노력과 정부와 국민, 마스크 등 외부의 후원으로 정부출연연구소가 더욱 즐겁게, 더욱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를 기원한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한 후 KAIST 물리학과에서 광학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